



전북대 치과대학, 지역아동센터서 의료봉사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김제 IG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앞서 지난 6월 26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미경)과 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장은영)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치과과사 7명과 치과 대학생 18명을 포함 25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의료봉사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레진수복, 유치 발치, 스켈링, 충치 예방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와 구강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칫솔 세트도 무료로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미래의 치과과사로 일 할 학생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제=곽태기 기자



남원 노암동, 취약계층 우산 나눔 진행

남원시 노암동은 관내 소외 취약계층을 매일 2가구 이상을 방문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고령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등은 여름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우산(양산 겸용) 200개를 구입해 가정 방문 시 애로사항 청취와 더불어 우산 나눔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 각종 사업 안내 및 드론 제진 홍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폭염·폭우 대비 행동요령을 배부하고, 수시로 후원을 받은 빵과 쌀 화장지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치매와 노암동장은 "폭염과 폭우에 모두가 힘들지만 건강하게 여름 나기를 바라면서 우산 나눔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신규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지난 27일, 7월의 신규 착한가게로 선정된 카페 '샷스트리트 남원점' (대표 노일환)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 사업으로 사랑의열매 착한 가게 현판을 통해 이를 인증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계농협, 농업인행복센터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장계농협(조합장 곽정용)은 지난 26일(금)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관내 취약계층 80여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장계농협, 농기구 부모임 등 25여명이 참여하여 열무김치, 찰밥, 김, 국수 등을 소포장하여 관내 취약계층 80여명에게 전달했다.

장계농협(조합장 곽정용)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만든 열무김치, 찰밥 등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보람차다"며 "무더운 여름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꾸준한 나눔 행사를 통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곽환희 기자

‘미스변산 진’에 김다형

제35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성황리 개최

최근 열린 '제35회 미스변산 선발대회'에서 김다형(18)양이 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미스변산 선에는 고보경(27), 미는 전해경(25), 전북도민일보에는 김다연(18), 지엘바이오테크는 하다연(27), 제일건설은 김소연(23), 부안침행에 김수정(23)씨 등 총 7명이 본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과 신효균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회의장과 김원진·박태수·김광수 부안군의원,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은숙 전 원광대 부총장 호남고속 김병수 사장 등 내빈과 심사위원이 참석해 출진자들을 격려했다.

이중훈 MBC 아나운서와 가수 노수영의 사회로 펼쳐진 올해 대회에 출진한 청춘들은 당당한 위키와 무대 매너, 당찬 목소리로 무대를 주름 잡았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 부안을 널리 알릴 홍보대사로서의 잠재력을 보였다.

그 결과 본상 외에도 우정상에 구예지, 이미령, 하다형, 스미일상에 김도형 정하영, 향토마인상에 차연우, 포토제닉상에 김수정, 김다연, 매너상에 곽수영, 김소



연, 유예민, 교양상에 양가인, 조여울 인기상 이재민 씨 등이 수상하면서 변산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박은숙 심사위원장은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지만 무대 위에서 당당함을 자신있게 뽐내는 사람이 변산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미스트롯3 출신 노수영을 비롯해 가수 금청·김덕진과 나다 조이폴 등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후끈 달구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6·25참전유공자 유족 화랑무공훈장 전수

정읍시는 29일 시장실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故서명령 남과 故윤남술 남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나라를 위한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전쟁 영웅들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훈장으로,故서명령 남과 故윤남술 남은 강원 강릉지구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공로로 74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다.

이번 전수식은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에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자 진행했다.

전수식에 참석한 故윤남술 남의 자녀 윤종수 씨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희생을 국가에서 잊지 않고 명예를 드높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군산시민·관광객 위한 '제1회 선유도 문화예술 힐링콘서트' 성료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및 군산지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하는 제1회 선유도 문화예술 힐링콘서트 가 지난 28일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군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재능 봉사 형태로 이뤄졌으며, (주)내원산업개발, 황금농장, (주)관수출포장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김안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회장, 황금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 함경식 대운산업개발 대표이사, 손병영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장, 원용원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집안군 회장 등 임원, 회원, 시민,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황금식 이사장 취임식 문화예술공연, 행운권추첨, 민남과 소룡의 시간(음식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황금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의 문화예술발전, 참여 확대, 문화예술인 권익향상, 각종행사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어 진행된 문화예술공연에서 가수 구재영·이수정·정순임·송하·진택 등 5명의 공연과, 개나리의 품바 무대, 이흥영씨의 색소폰 연주, 오이순씨의 시낭송, 이성민씨의 웅변, 원용원씨의 동동구루무 무대가 펼쳐졌다. 함께 진행된 감사장 수여식에서 함경식 대운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손병영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장이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최고위과정, 완주군 수재민 생필품 전달

전북대 최고위과정 제13기 원우회가 완주군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은 공사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유기관 기관장급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 지점장급 이상 금융기관 간부, 도단위 각종 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장직속 산하에서 진행되는 최고위과정 연수 과정이다.

이들은 최근 완주군을 방문해 이불 등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정수 완주군장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군, 장마로 쌓인 부유물 제거 위한 하천정화활동 펼쳐

진안군은 29일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와 군 환경과 직원 등 40여명이 용담호에서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정화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하천변으로 유입된 방치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구방천 일원(전반산지연휴임팅 인근) 약 1km의 구간에서 합동정화활동이 진행됐다.

정화활동에 참가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하천변 방치쓰레기 약 1톤가량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용담호광역상수원 지킴이로 참석한 안복순(동향면 학선리)씨는 " 그동안 폭우로 인해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며 "나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퇴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이와 함께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은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와 군 환경과 직원 등 40여명이 용담호에서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새일센터,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서 협약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29일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윤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은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이동상담 창구와 홍보를 제공하고, 센터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 구직상담과 취업연계는 물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정희 원장을 비롯해 박윤철 지사장, 주택관리공단 전주 기타관리 김숙현 단장, 군산 기타관리 김명천 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윤철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급류에 휩쓸려 고립된 인명 구조

남원소방서(서장 안승주)는 지난 28일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지역 탈출이 불가능한 2명을 구조했다고 29일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든 앞 뱀사골 계곡(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떠나려가다 바위를 잡았으나 지역 탈출이 불가능한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인員 119구조대원이 구조하였으며, 구조자는 타박상 및 가벼운 탈진 상태를 보여 보은 조치 후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남원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소방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는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며, 안전 수칙으로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 시선은 건너편 강변 뚝을 바라보고 이동한다 △이동 방향에 물이 있으면 피하고, 지팡이 등으로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황도현농협, 생활법률 등 이동상담실 진행

정읍 황도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최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여성조합원 110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불편 해소와 고령농업인 스마트폰활용교육을 위한 이동상담실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농촌현장을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수지면, 체계적·구체적 상생 복지 추진

남원시 수지면은 2024년 연초부터 추진해 온 시책 추진 사업을 하반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지면의 2024년 7월 기준 현재 추진사업은 13개 유형의 시책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편의 제공과 맞춤형복지서비스 등으로 세부적으로 읍면동 공통사업 5개 사업, 자체 추진사업 8개 사업이며 주민생활터는 5개사업 맞춤형복지사업은 8개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1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 지원(35명이 이용, 이불 90채, 커튼 1개, 수건 4건 △인 1나눔 계좌 찾기 사업은 총 27명이 가입하였으며, 2월에 추진한 △내가 제일 이쁜 마을 열색방은 9개 마을, 82명(연세 26명, 미용 36)에게 서비스 제공 △우리집에 행복을 주는 반딧불 LED 조명은 67구 8개 설치 △리싸이클 가구 수리지원 1가구 △독거노인 말반찬 지원은 68명 △365 어르신 건강 약 상자 제작 지원은 50개를 제작하여 20명에게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